

신라 중·하대의 외국 사신 영접과 대외인식

고려대학교 최희준

머리말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공식적인 교섭은 使臣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신이 파견되면 이를 맞이하는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접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영접에는 사신 파견국과 접대국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 때문에 만일 양국 간의 관계 설정이 상이하여 영접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교섭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최악의 경우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었다. 즉, 사신 영접이란 교섭 당사국들 간의 국제관계나 상호 인식과 같은 非可視的인 요소들을 현실에서 재연토록 하는 외교적 장치였던 것이다.

신라 역시도 건국 이래로 주변의 다양한 나라들과 사신을 교환하며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신의 교환은 신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항시적이고 정형화된 영접 방식을 형성·유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접에는 양국 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깊이 투영되어 있었음은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때문에 신라가 주변국의 사신을 어떻게 영접하였는가에 대한 이해는 당시 신라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신라가 來訪한 주변국 사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영접하였고, 또한 그 영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였는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영접관부의 개편과 진덕왕대의 개혁

신라의 중앙 관부 중에서 자국을 방문한 주변국 사신에 대한 영접 업무를 담당했던 관부는 영객부였다.

A. 領客府 本名倭典 眞平王四十三年 改爲領客典[後又別置倭典] 景德王又改爲司賓府 惠恭王復故 令二人 眞德王五年置 位自大阿滄至角干爲之 卿二人 文武王十五年加一人 位與調府卿同 大舍二人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大舍 位與調府大舍同 舍知一人 景德王改爲司儀 惠恭王復稱舍知 位與調府舍知同 史八人(『三國史記』卷 38 雜誌 7 職官上 領客府)

사료 A 는 『삼국사기』 직관지 영객부조의 내용이다. 영객부는 본래 倭典에서 비롯되었는데, 진평왕 43 년(621)에 그 이름이 領客典으로 바뀌었다. 진평왕 43 년은 신라가 처음으로 唐과 사신을 교환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한 해였다.¹ 그러는 과정에서 신라에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倭典이라는 영접관부의 명칭을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듯하다. 그 결과 진평왕 43 년 신라는 기존의 영접관부 명칭인 倭典을 領客典으로 수정한 것이다.²

그렇다면 신라의 영접관부는 언제 영객전에서 영객부로 바뀌게 된 것일까? 사료 A 에 따르면 신라가 영객부에 처음으로 2 명의 丞을 둔 것은 진덕왕 5 년(651)의 일이다. 신라의 중앙행정관부 중 丞이 두어지는 곳은 丞·卿·大舍·舍知·史의 5 등 관제 체계를 갖춘 部나 府계통의 상위관부들이다. 따라서 영객전에서 영객부로의 전환은 이 관부에 丞이 처음 설치되었던 진덕왕 5 년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 뿐 아니라 이전에 하위관부였던 ‘領客典’이 丞을 두는 ‘領客府’로 확대·개편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관부의 확대·개편은 당시 영접관부의 역할과 기능이 이전보다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진덕왕 즉위 이후 당과의 더욱 밀접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진덕왕 5 년은 신라가 진덕왕 즉위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개혁들이 일단락되는 해였다. 진덕왕 2 년(648) 金春秋는 唐에 사신으로 건너가 太宗에게 國學에서 열리는 釋奠과 講論을 참관하는 것과 더불어 신라의 冠服을 중화의 제도에 따라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다.³ 특히 김춘추가 국학의 석전과 강론을 참관하고자 하였음은 그 자신이 평소 품고 있었던 儒敎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⁴ 그는 진덕왕 사후에 있을 자신의 왕위 계승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로운 통치 이념의 도입을 구상하였고, 그 해답을 유교에서 얻으려 한 듯하다. 그리고 그는 당에 체류했던 기간 동안 유교에 기반한 당의 제도들을 몸소 체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가 지니는 효용성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신라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의 귀국 후 연차적으로 단행되었던 일련의 개혁이었다.

¹ 『三國史記』 卷 4 新羅本紀 4 眞平王 43 年(621).

² 濱田耕策, 1979, 「新羅聖德王代の政治と外交 - 通文博士と倭典をめぐる -」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朝鮮歴史論集』 上,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 東京, 223 쪽; 2002,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32~133 쪽.

³ 『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5 眞德王 2 年(648).

⁴ 唐代 석전은 先聖인 孔子와 先師인 顔回에게 제사를 올리는 대표적인 유교 의식이었고, 국학의 강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유교 교육 현장이었다.

먼저 김춘추는 진덕왕 3년(649) 百官의 衣冠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章服制의 개혁을 추진하였다.⁵ 이는 앞서 그가 입당하였을 당시 당 태종으로부터 허가를 구한 사항이 실제 신라 조정에서 곧바로 이행된 것이다. 이로써 신라는 국왕을 비롯한 모든 관인들이 중화의 제도, 즉 유교적인 예제에 따라서 장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⁶ 그리고 이듬해인 진덕왕 4년(650)부터는 당의 연호인 永徽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⁷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장복제 개정과 더불어 신라 국왕 스스로가 당 황제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황제의 제후임을 현실에서 수용하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한편, 같은 해 4 월에는 眞骨 在位者들에게 牙笏을 들게 하였고,⁸ 다음 해(651) 정월에는 賀正之禮를 처음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⁹ 이러한 조치는 君臣 간의 수직적인 上下관계를 형식적인 의례를 통하여 가시화시킴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제 신라의 왕권은 종래의 불교로부터 빌려 온 관념적 요소에 더하여, 유교의 구체적인 의례에 의해서 더욱 실제적인 것으로 새롭게 규정되었다.¹⁰ 이상의 개혁들은 더 이상의 聖骨이 존재하지 않는 신라의 현실 속에서, 당시 최고 실력자이자 차기 왕위 계승을 노리고 있던 김춘추가 향후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김춘추는 진덕왕 5년까지 관념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에서의 유교적 통치 기반을 마련하자, 이후 대대적인 관제 개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대규모 관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진덕왕 5년에 시행된 대대적인 관부 개편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신라 사회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진덕왕 5년에 있었던 영객부의 승격도 개별적인 개편이 아니라 일련의 관제개혁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진덕왕 5년에 새로 설치되거나 개편된 관부는 총 8 곳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확인되는 관부는 禮部이다. 다른 7 개의 관부와 비교했을 때 예부는 卿과 大舍가 각각 2 명

⁵ 『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5 眞德王 3年(649) 正月.

⁶ 『日本書紀』에는 651년 신라 사신 知萬 沙滄이 일본의 筑紫에 이르렀는데, 唐의 복식을 차려입고 있어 함부로 풍속을 바꾸었다고 꾸짖으며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日本書紀』 卷 25 孝德天皇 白雉 2年) 이처럼 신라는 진덕왕 3년(649) 이후 주변국에 파견하는 使臣들에게도 唐制에 따른 官服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⁷ 『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5 眞德王 4年(650).

⁸ 『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5 眞德王 4年(650) 4月.

⁹ 『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5 眞德王 5年(651) 正月.

¹⁰ 金瑛河, 1988,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試論」 『泰東古典研究』 4, 35~36 쪽.

새롭게 두어졌으며 史가 기준 8 명에서 3 명 더 추가되어 총 11 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부의 기능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따르면 총 5 개의 禮部 예하 관서 중 진덕왕 5 년에 존재했던 곳은 大道署 하나뿐이고, 나머지 국학과 음성서, 전사서, 공장부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직관지의 국학, 음성서, 전사서, 공장부조에는 이들 모두 진덕왕 5 년(651)에 실무자격인 大舍 2 인이 두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무자 격의 大舍가 처음으로 두어졌다는 것은 각 관서의 역할에 해당하는 실무가 진덕왕 5 년 예부 아래에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학, 음성서, 전사서, 공장부 등의 담당 업무는 모두 진덕왕 5 년에 처음으로 예부에 부여된 임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서들의 임무가 예부에 부여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예부가 지니고 있던 기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신라의 국가 儀禮를 담당한 禮部가 체제 완비를 일단락 하였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禮로써 다스리는 유교의 통치 이념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가의례를 관장하는 담당관부의 역할을 크게 확장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부의 확대 개편과 동시기에 영객전이 영객부로 승격된 사실 또한 동일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진덕왕 5 년 영객전이 영객부로 승격된 데에는 對唐 업무의 중요성이 커졌던 당시 신라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과 동시에 김춘추가 추진한 유교적 통치 이념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객부의 기능이 신라를 방문한 사신에 대한 영접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므로 진덕왕 5 년에 신라가 영객전을 영객부로 승격시키면서 수립하고자 했던 것은 유교적 예제에 기반한 사신 영접 체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장을 바꾸어 진덕왕 5 년 이후 신라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 사신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영접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I. 新羅의 外國 使臣 迎接 절차

신라의 외국 사신에 대한 영접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라가 수용한 당 영접의례의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外國 使臣이 唐에 入國하기 위해 邊關에 도착하면, 무엇보다 먼저 唐 朝廷으로부터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사신단은 도착과 동시에 문서로 당의 지방행정계통을 통하여 입국 허가를 신청하였다. 사신단으로부터 문서를 접수받은 지방관은 그 사실을 관할 州 혹은

¹¹ 『三國史記』 職官志에 따르면 國學은 신문왕 2 년(682), 典祀署는 성덕왕 12 년(713)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音聲署, 工匠署는 그 설치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都督府에 보고한 뒤, 중앙으로부터 입국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사신단을 대기시켰다. 관할 州나 都督府는 사신단의 문서 내용을 검토한 뒤 朝廷에 보고하였는데, 이 때 조정에서는 사신단의 입국 여부, 入京할 인원수와 시기, 행로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한 뒤 사신단을 인솔할 使者를 파견하였다. 사신단의 입국을 命 받은 관할 州 혹은 都督府는 내착지에 대기하고 있던 사신단을 州 혹은 都督府로 불러들여 入京시켰다. 이 때 사신단은 황제가 파견한 使者의 인솔과 호위를 받으며 정해진 入京路를 따라 이동하였으며, 入京에서 제외된 사신단원들은 처음 도착한 곳으로 돌아가 入京한 인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였다.

長安城 인근에 다다른 사신단은 황제가 파견한 사자에 의해 郊에서 迎接받은 뒤, 入京하여 鴻臚客館에 안치되었다. 이후 황제는 鴻臚客館에 使者를 보내 위로하고 알현할 날짜를 알려주었다. 약속한 날짜에 이르면 사신단은 入闕하여 본국에서 가져온 國書와 貢物을 바친 뒤 황제를 알현하였고, 알현이 끝나면 황제의 주관으로 宴會가 베풀어 졌다. 황제를 알현하고 國書와 貢物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임무를 마친 사신단은 황제로부터 조서와 回謝品을 전달받은 뒤 郊까지 勅使의 배웅을 받으며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¹²

이와 같은 절차의 외국 사신 영접은 당의 영접의례를 도입하여 운용한 8 세기 이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 된다. 『日本三代實錄』에는 882 년 11 월에 日本을 방문하였다가 다음 해인 883 년 5 월에 귀국한 渤海使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大使 裴頌이 이끄는 150 명의 渤海使臣團은 加賀國 연안에 來着하였다. 이에 加賀國은 발해사신단의 도착 소식을 조정에 보고하고 天皇의 명에 따라 그들을 영지 내에서 대기시켰다. 이후 일본 조정은 存問 謁 領客使와 通事를 임명하여 사신단이 머물고 있는 加賀國에 파견하였고, 領客使가 사신단을 인솔하여 입경하는 동안 발해사신들의 영접을 담당할 掌渤海客使를 선별하였다.

이윽고 발해사신들이 平安京의 郊外에 이르면 天皇은 勅을 내려 使者로 하여금 사신단을 郊에서 慰勞하고 客館인 鴻臚館에 안치하게 한다. 鴻臚客館에 안치된 발해사는 조정에서 파견된 使者로부터 慰勞를 받은 뒤, 天皇을 알현할 날짜를 통보받았다. 이후 사신단은 朝堂에서 일본 天皇을 알현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渤海의 大使 裴頌은 渤海王의 啓와 信物을 바쳤다. 다음 날 天皇은 豐樂殿에서 발해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祿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이러한 연회는 발해사신들에게 한 차례 더 베풀어졌으며, 사신단의 대표인 대사 배정은 天皇에게 별도의 선물을 증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모든 일정을 마친 사신단은 平安京을 나서게 되는데, 이때 天皇은

¹²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使者를 鴻臚館으로 보내 勅書를 전달하였다. 천황의 칙서를 수령한 사신 일행은 일본 조정에서 임명한 領客使의 인도 하에 귀국길에 올랐다.¹³

日本の 주변국 사신에 대한 영접 절차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큰 틀에서 唐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던 까닭은 일본이 당의 의례 체계를 모방하여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신라가 來訪한 주변국의 사신들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영접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B-1. 八年 六月十二日 遼東道安撫副大使 遼東行軍副大總管 兼熊津道安撫大使 行軍總管 右相 檢校太子左中護 上柱國 樂城縣開國男 劉仁軌 奉皇帝勅旨 與宿衛沙滄金三光 到党項津 王使角干金仁問 延迎之以大禮(『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6 文武王 8年)

B-2. 元年 冬十月二十九日 大王聞唐皇帝使者至 遂還京(『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6 文武王 元年)

사료 B-1 은 문무왕 8년(668) 6월 12일에 唐使 劉仁軌가 고구려를 공격할 군사 기일을 약조하기 위해 황제의 勅旨를 지니고 신라에 이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당사 유인케는 党項津을 통해 신라에 입국하였으며 신라의 문무왕은 角干 金仁問에게 大禮로써 그를 延迎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 사신이 海路를 이용하여 신라에 이르렀으며, 그 來着한 지점이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일대에 비정되는 党項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신라국왕은 도착한 당의 사신을 延迎하기 위해 내착지인 당항진에 使者를 파견하기도 하였다.¹⁵

사료 B-2 에는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몸소 戰場에 나와 있던 문무왕이 당 사신의 도착 사실을 보고받고 王京으로 돌아간 상황을 전한다. 이를 통해 당 사신이 국경에 도착하면 그 사실이 국왕에게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신라를 방문한 당 사신은 당 황제의

¹³ 일본은 신라의 사신에 대해서도 발해와 유사한 절차를 적용시켰다. 『續日本紀』 孝謙天皇 4年(752)에 보이는 일련의 기사를 통해서 그 절차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續日本紀』 卷 18 孝謙天皇 4年)

¹⁴ 이러한 사실들은 『新唐書』 地理志의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新唐書』 地理志에는 당에서 신라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登州를 출발하여 海路로 唐恩浦에 이르며 唐恩浦부터 王城까지는 陸路를 이용한다고 하였다.(『新唐書』 卷 43 下 志 33 下 地理 7 下 入四夷之路與關戍走集)

¹⁵ 이때 唐使 劉仁軌가 황제의 勅旨를 지니고 延迎使로 파견된 金仁問을 따라 入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는 고구려의 원정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勅使 유인케는 고구려를 원정하기 위해 임명된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완전한 영접절차가 구현되지 않은 채 약식으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명에 따라 태종무열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새로 즉위한 문무왕을 책봉하기 위해 파견된 弔問 檢冊封使였다. 이러한 사신의 방문 목적은 사신의 도착 사실과 함께 문무왕에게 보고되었다.¹⁶ 그렇기 때문에 문무왕은 부왕에 대한 조문과 자신의 책봉의식을 이행하기 위해 왕경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료 B-1 에서 보이는 延迎使의 파견 조치 역시 보고 절차가 사료 상에서 생략되었을 뿐, 이와 같은 수순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 국왕에게 狀을 통해 자신들의 입국 사실을 통보한 당 사신단은 唐이나 日本의 경우와 같이 신라 국왕이 파견한 使者가 이를 때까지 党項津을 관할하는 唐恩郡 내의 어느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일대의 唐城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당성은 입지조건이나 규모로 보아 신라 唐恩郡의 治所가 위치했던 城으로 비정되는 유적이다. 이곳에서는 2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많은 양의 신라계 유물이 출토되어 삼국시대부터 통일기에 이르기까지 신라가 이 성곽을 전략적 요충지 및 지방지배의 거점으로 이용하였음을 입증해 주었다.

특히 제 2 차 발굴조사 때에는 III-1 지구에서 많은 양의 銘文瓦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는‘館’자가 찍힌 기와편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¹⁷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館’자가 주로 사신이 머무는 客館의 의미로 자주 등장한다.¹⁸ 이러한 ‘館’자의 용례나 唐城이 위치한 남양면 일대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곳에서 출토된 ‘館’자 명문와는 客館에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당성 혹은 그 부근에는 신라의 객관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 시설은 당의 사신들이 도착하여 신라 국왕의 使者를 기다리던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라 국왕이 파견한 延迎使가 사신단이 머물고 있던 唐恩郡의 治所에 도착하면 그들을 인솔하여 입경길에 올랐다. 당은군에서 왕경까지는 육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삼국사기』에는 그 경로를 唐恩浦路라고 하였다.¹⁹ 당은포로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현재의 경주에서 계림령을 넘어 충주를 지나 남한강을 끼고

¹⁶ 당의 사신단이 자신들의 도착 사실과 입국 목적을 신라 국왕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하는 사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122 년에 高麗에 宋의 使臣으로 건너 온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따르면 고려 群山島에 來着한 宋의 사신단이 도착과 함께 고려국왕에게 ‘國王先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宣和奉使高麗圖經』 卷 36 海道 3 群山島)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당의 사신단 역시 宋使의 경우처럼 신라 국왕에게 狀을 보내어 자신들의 입국과 입국 목적을 전달하였을 것이다.

¹⁷ 裴基同·朴晟喜, 2001, 『唐城 2次 發掘調查報告書』, 華城郡·漢陽大學校博物館, 130 쪽.

¹⁸ 『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6 文武王 2年(662); 『三國史記』 卷 45 列傳 5 昔于老; 『三國遺事』 卷 2 紀異 2 元聖大王.

¹⁹ 『三國史記』 卷 34 雜志 3 地理 1 新羅 上州.

남양만에 이르는 경로로 이해한 견해²⁰와 경주에서 추풍령이나 화령을 넘어 청주를 지나 남양만에 이르는 경로²¹로 이해한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신단의 입경로가 단일하게 정해졌다고 보다는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그 노선이 적절하게 선택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당의 사신단은 唐恩浦路를 따라 新羅의 王京에 다다르게 되었다. 당 사신단이 신라 王京의 郊에 이르면 이곳에서는 사신단을 맞이하는 의식, 즉 郊迎이 행해졌다. 이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조에 실린 答薛仁貴書에서 신라의 郊迎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다.²² 이에 따르면 문무왕은 설인귀가 멀리 바다를 건너 신라에 來訪하였으므로 郊에 使者를 파견하여 쇠고기와 술로써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가 신라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직접 入京하지 않아 예를 다할 수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신라의 영접의례에 따라 정상적인 入京 과정을 거친 당 사신은 王京의 郊에서 신라 국왕이 파견한 使者에 의해 영접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郊에서 영접을 받은 당의 사신은 드디어 신라 왕경에 入京하게 되었다. 신라는 당의 사신이 입경하면 가장 먼저 이들을 王京 내의 客館에 안치시켰는데, 신라 王京 내에 위치한 객관이 일찍부터 사료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미 몇 차례 확인한 바 있으므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후 신라 국왕은 황제의 조서를 전달받을 날짜를 택한 뒤 객관에 머물고 있는 당 사신에게 알려주었다.²³ 약속한 날짜에 이르면 신라 국왕과 당 황제의 사신 간에 공식적인 접견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당의 사신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황제의 詔書を 國信과 함께 신라 국왕에게 전달하였다. 다음 C 군의 사료들은 신라 국왕이 당 사신을 만나 영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C-1. 至三年山城 傳詔 … 錫命後 文度欲以宣物授王 忽疾作便死 從者攝位畢事(『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年 9月 28日)

C-2. 二年 春二月 唐玄宗 … 遣左贊善大夫邢璣 以鴻臚少卿 往吊祭 贈太子太保 且冊嗣王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 夏四月 唐使臣邢璣 以老子道德經等文書 獻于王(『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孝成王 2年)

²⁰ 濱田耕策, 1990, 「新羅の迎賓機構 - 關門と領客府 - 」 『古代文化』 42-8, 471~472 쪽;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 遣唐使研究-』, 一潮閣, 192~193 쪽.

²¹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399~405 쪽;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27~134 쪽.

²²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671) 7月.

²³ 고려는 宋의 사신을 객관인 順天館에 안치한 후 그로부터 10 일 안에 詔書 받을 날짜를 정하였는데, 기일의 하루 전에 說儀官을 파견하여 날짜를 알리도록 하였다.(『宣和奉使高麗圖經』 卷25 受詔)

C-3. 三年 春二月 賜邢璣黃金三十兩布五十四人蓼一百斤(『三國史記』 卷 9
新羅本紀 9 孝成王 3 年)

사료 C-1 은 비록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野戰에서 행해진 의식이지만, 당 사신의 황제 조서 전달과 국신물의 증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의 사신 王文度는 신라의 文武王에게 황제의 조서를 전달한 뒤, 國信도 함께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왕문도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당에서 준비해온 국신은 왕문도를 따라온 일행에 의해 무열왕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신라 국왕이 당 사신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황제의 조서를 전달받고, 그 후 사신이 준비해 온 국신을 증정 받는 의식의 순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사료 C-2 에 등장하는 邢璣은 효성왕 2 년(738) 봄 2 월 당 현종으로부터 鴻臚小卿으로 임명되어 弔問 겸 冊封使로 신라에 파견된 인물이었다. 그는 같은 해 4 월에 신라 孝成王에게 書冊 등을 바치고 있다. 형숙이 증여한 서책 등은 그가 당에서부터 준비해 온 國信物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효성왕은 형숙으로부터 이와 같은 국신을 증정받기에 앞서 황제의 조서 선포를 통한 자신의 책봉 의식을 먼저 이행하였을 것이다.

당이나 일본, 그리고 고려의 사신 영접 사례로 미루어보아 황제의 詔書가 신라 국왕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신라 국왕의 주관으로 연회 의식이 행해졌을 것이다. 당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는 신라 말 경순왕 5 년(931)에 高麗의 太祖가 신라를 방문했을 때 왕이 臨海殿에서 연회를 베푸는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²⁴ 『삼국사기』에서 임해전은 신라의 여러 正殿 중에서 특히 연회 의식을 이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는데,²⁵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 사신에게 베푸는 연회 의식도 이곳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는 여기까지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친 당 사신에게 당 황제의 조칙과 국신에 대한 신라 국왕의 답서로 表와 答禮品을 전달하였다. 이때 당의 사신들 개인에게도 별도의 선물이 증정되었다. 사료 F-3 은 효성왕 3 년(739) 신라 국왕이 당 사신 형숙에게 선물을 증정한 기록이다. 사료 F-2 에 따르면 형숙은 효성왕 2 년(738) 2 월에 당으로부터 파견되어 동년 4 월에 신라 국왕을 알현하였다. 그렇다면 사료 F-3 의 선물 증정은 詔書의 전달과 國信의 증여라는 의식이 치러진지 10 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겠다. 특히 물품을 증여받은

²⁴ 『三國史記』 卷 12 新羅本紀 12 敬順王 5 年(931).

²⁵ 여호규, 2003, 「新羅 都城의 儀禮空間과 王京制의 성립과정」 『新羅王京調査의 成果와 意義』, 文化財研究 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 12, 79 쪽.

대상을 邢璣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신라 국왕이 사신 개인에게 증정한 답례품으로 생각된다.²⁶ 이후의 귀국 절차는 입경의 역순으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를 방문한 일본 사신에 대한 영접을 살펴보도록 하자.

D. 新羅國執事省牒 日本國太政官 紀三津詐稱朝聘兼有贄贖 及檢公牒 假僞非實者 牒 得三津等狀 稱奉本王命 專來通好 及開函覽牒 但云修聘巨唐 脫有使船漂着彼界 則扶之送過 無俾滯遏者 主司再發星使 設問丁寧 口與牒乖 虛實莫辯 既非交隣之使 必匪由衷之賂 事無撫實 豈合虛受 且太政官印 篆跡分明 … 不知島嶼之人 東西窺利 偷學官印 假造公牒 … 使非專對 不足爲憑 … 事須牒太政官并牒靑州 量事 支給過海程糧 放還本國 請處分者 (『續日本後紀』 卷 5 承和 3 年 12 月 丁酉)

사료 D 는 신라의 執事省에서 일본의 太政官에게 보낸 牒文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 기록은 興德王 11 년(836)에 신라 靑州에 來着한 일본 사신 紀三津을 본국으로 放還시키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적어 보낸 것이다. 신라의 집사성이 기삼진을 방환시킨 까닭은 그의 입국목적에 대한 진술이 그가 지니고 온 太政官의 公牒에 쓰여진 내용과 달라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삼진의 진술은 狀으로 작성되었으며, 函 속에 봉인된 太政官의 牒과 함께 신라 조정에 보고되었다. 태정관의 첩에는 태정관의 官印이 찍혀있어 신라 집사성에서 公牒의 진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신라조정은 함을 열어 태정관의 첩과 기삼진의 狀을 비교 확인하였는데,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자 기삼진이 머물고 있던 곳에 사자를 파견하여 재차 진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확인 과정에서도 기삼진의 말이 태정관의 첩과 일치하지 않자 결국 신라는 일본 사신 일행을 본국으로 방환하게 된 것이다. 이 때 신라의 집사성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일본의 태정관에 牒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료 D 와 같은 내용의 첩을 태정관과 동시에 靑州에도 보내어 사안을 헤아리게 하였다는 점이다. 청주는 신문왕대 설치된 신라의 9 州 중 하나로 통일 이전의 신라 영토 중 王京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州로 편제한 곳이다.²⁷ 집사성에서 일본사신에 대한

²⁶ 신라가 당 황제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답례품 이외에도 來訪 사신에게 개별적으로 선물을 증정하는 것은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唐의 李肇가 唐 開元 年間(713~741)부터 長慶 年間(821~824)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唐國史補』에는 신라가 자국을 방문한 당 사신에게 金과 寶物로써 후하게 선물했다고 하였다.(『唐國史補』 卷之下)

²⁷ 『三國史記』 卷 34 雜志 3 地理 1 康州. 康州는 靑州의 이칭으로 『三國史記』 내에서 신라 멸망기까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태정관과 동시에 청주에 첩한 이유는 신라 국왕의 입국허가를 기다리던 기삼진이 靑州 都督의 관할 아래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조정에서 일본 사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使者를 파견한 곳도 당연히 기삼진이 머물고 있던 靑州로 보아야겠다. 그렇다면 일본 사신이 신라 국왕에게 올린 狀 역시도 靑州의 행정계통을 통해 신라의 중앙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²⁸

청주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州治는 현재의 경상남도 진주시 일대로 비정된다. 따라서 일본 사신이 내착한 지점은 진주 부근에 위치한 사천, 혹은 고성 부근의 어느 포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⁹ 그리고 신라의 도성에서 청주 治所로의 이동은 지금의 경주-양산-동래-김해-마산-진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주로 이용하였다.³⁰ 따라서 일본 사신에 관한 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 사신의 입경 역시 이러한 노선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來訪한 일본 사신이 入京길에 오르기까지에 관한 신라의 영접 절차를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일본 사신이 靑州 관할의 浦口에 來着하면 먼저 신라 국왕에게 자신들의 입국 사실과 입국목적을 狀으로 보고하였다. 이 때 函 속에 봉해진 牒도 함께 移管하였는데, 이러한 일본 사신의 문서를 수령하고 신라 국왕에게 보고하는 책임은 대일본외교에 있어서 창구 역할을 담당한 靑州의 都督에게 있었다. 靑州로부터 일본 사신의 문서를 접수한 신라의 執事省은 函을 열어 牒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來訪한 사신이 작성한 狀과 비교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來訪한 사신의 진위여부와 입국목적 등이 확인되면 신라 국왕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이후 일본 사신단을 맞이할 延迎使를 임명하고, 入京할 사신의 수 등이 결정되었다.

드디어 신라 국왕은 일본 사신단을 인솔할 延迎使를 靑州로 파견하고, 파견된 연영사는 청주의 관할 하에서 入京 허가를 대기하고 있던 일본 사신단을 인솔하여 入京길에 오르게 된다. 사신단이 신라의 都城에 도착하게 되면, 郊에서 국왕이 파견한 使者로부터 慰勞를 받은 뒤, 도성 내에 위치한 客館에 안치된다. 이는 앞서 살핀 唐使의 경우와 같다. 이 후 신라 국왕으로부터 접견할 날짜를 통보받으면 기일에 맞춰 국왕을 謁見하고 그 자리에서 國書와 國信物을 전달한다. 그리고 신라 국왕이 주최하는 연회가 베풀어진 뒤 국왕의 答書와 回謝品이 증정되고 나면 일본 사신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²⁸ 尹善泰, 2003, 「新羅의 文書行政과 木簡 -牒式文書を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5,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²⁹ 金昌錫, 2005, 「靑州의 祿邑과 香徒 -신라 하대 지방사회 변동의 일례-」 『新羅文化』 26.

³⁰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403 쪽; 徐榮一, 2000, 「新羅 五通考」 『統一新羅의 對外關係와 思想研究』, 백산자료원, 113~114 쪽.

IV. 新羅의 外國 使臣 迎接과 對外認識

신라의 사신 영접 절차는 당이나 일본 사신단의 내착지에 따른 영접 지역의 차이와 몇 가지 단계의 복잡함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³¹ 다시 말해 신라의 사신 영접에 있어서 그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에 유사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례를 행하는 대상국에 따라 영접의례의 격식은 엄격한 차이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당 사신에 대해서 大禮로서 영접하기도 하고, 일본 사신의 경우처럼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고집하게 되면 국왕과의 알현 자체가 거부당하거나 입국조차 허락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E-1. 叔坦謂臣 涕隨言下曰 顧茲一境 異彼三方 何則 改服章 奉正朔 仰遵帝國
俯緝侯蕃 (『東文選』 卷 33 表箋 謝嗣位表)

E-2. 二十八日 至三年山城 傳詔 文度面東立 大王面西立 (『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5 太宗武烈王 7 年條)

사료 H-1 은 최치원이 진성왕 11 년(897)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謝嗣位表」의 내용 중 일부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숙모 坦’은 신라 제 51 대 眞聖王이며, ‘臣’은 太子 曉로 진성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신라 제 52 대 孝恭王을 가리킨다. 表文의 내용에 따르면 진성왕은 태자 요에게 신라의 지난날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皇帝國’과 ‘藩國’이라는 틀을 가지고 당과 신라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華夷觀에서 도출된 인식론에 바탕한 것으로 당은 華이고 당의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은 夷이라는 생각을 신라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² 다시 말해 신라인들의 인식 속의 당은 天下의 중심에 위치한 皇帝國이었으며 그 외의 국가들은 藩國의 위치에 자리매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문서는 신라 국왕이 唐 황제에게 보내는 表文으로, 당시 신라의 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료이다.

³¹ 이러한 사례는 당의 의례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大唐開元禮』 賓禮條에서도 확인된다. 『대당개원례』에 정리된 唐의 賓禮는 藩主가 來朝한 경우와 藩使가 來朝한 경우가 나누어 정리되어 있으나, 두 경우의 차이는 의례를 행하는 격식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 절차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³² 眞聖王은 신라가 服章을 고치고 正朔을 받드는 등 황제의 나라를 좇았기 때문에 다른 ‘三方’과 다름을 강조하였다. 이는 진성왕의 인식 속에서 신라가 비록 唐의 四方을 구성하는 藩國 중 하나이지만, 唐의 문화를 받아들여 나머지 ‘三方’의 藩國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 된 듯하다.(하일식, 2000,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37, 82~83 쪽)

이러한 신라의 인식이 사신의 영접이라는 외교적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료 E-2 이다. 이는 무열왕 7 년(660) 당시 熊津都督이었던 唐의 王文度가 三年山城에서 신라국왕에게 황제의 詔를 전달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당 황제의 詔를 전달함에 있어 왕문도와 무열왕은 서로 東西面을 하였다고 한다. 황제의 詔를 전달함에 있어 왕문도가 東面한 것은 그가 황제로부터 파견된 使者였기 때문이고, 무열왕이 西面한 까닭은 자신을 황제의 藩主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7 세기 중엽 이미 당과 신라는 서로 간의 관계를 황제국과 변국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신라는 자국을 방문한 당 사신에 대해서 변국의 입장에서 황제국의 사자를 맞이하는 격의 영접의례를 행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라가 당 이외 국가들의 사신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설정 하에 영접하였는지 검토해 볼 차례이다. 앞서 살핀 사료 E-1 에서와 같이 신라는 자신을 포함한 당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의 藩國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라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에도 적용되었는데, 다음 F 군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1. 三玄言曰 奉本國王教 請修舊好 每相聘問 … 問曰 夫請修舊好 每相聘問 乃似尙禮之隣 非是供職之國 (『續日本紀』 卷 33 寶龜 5 年(774) 3 月 癸卯)

F-2. 得三津等狀 稱奉本王命 專來通好 及開函覽牒 但云修聘巨唐 脫有使船漂着彼界 則扶之送過 無俾滯遏者 主司再發星使 設問丁寧 口與牒乖 虛實莫辯 既非交隣之使 必匪由衷之賂 事無撫實 豈合虛受 (『續日本後紀』 卷 5 承和 3 年 12 月 丁酉)

사료 F-1 은 『續日本紀』 寶龜 5 年(774, 혜공왕 10 年)에 일본 천황이 파견한 使者가 大宰府에 도착한 신라 사신 金三玄에게 來訪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신라 사신 삼현은 혜공왕의 敎에 따라 “오래된 우호를 닦고 지속적으로 서로 聘問할 것(修舊好 每相聘問)”을 청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되었다. 신라 사신으로부터 이러한 입국목적 확인한 천황의 사자는 “오래된 우호를 닦고 지속적으로 서로 聘問하는 것(修舊好 每相聘問)”이란 “대등한 禮(尙禮)를 행하는 이웃(隣)과 같은 것(似尙禮之隣)”으로 “신하의 직분을 바치는 國(國)”인 신라와는 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상호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갈등으로 774 年의 신라 사신은 대재부에서 입경길에 오르지도 못한 채 고국으로 放還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8 세기 중엽 신라가 일본과의 관계를 隣國으로 설정하고자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일본에 파견된 사신들이 계속해서 藩國 使臣으로 대접받자 일본과의 관계를 “오래된 우호를 닦고 지속적으로 서로 聘問(修舊好 每相聘問)”하는 “대등한 禮(尙禮)를 행하는 이웃(隣)”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자국의 영역 밖에서 당으로부터

신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경쟁했던 존재이거나,³³ 사신의 오만하고 무례함으로 인하여 신라로부터 放還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³⁴ 하지만 자국의 영역 안에서만큼은 천황 중심의 세계관을 현실화시키고자 신라를 藩國視했기 때문에 신라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사료 F-2 는 앞 장에서 신라의 일본사신에 대한 영접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았던 신라 집사성첩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미 살핀 사료를 다시 제시하는 이유는 기삼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신라측이 내린 결론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신라는 끝내 그가 일본 조정에서 파견한 사신이라는 확신을 얻지 못하자 “交隣의 사신이 아니다.(非交隣之使)”라고 결론짓고 있다. 당시 신라는 일본을 交隣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⁵ 이처럼 신라가 일본에 대해서 交隣의 대상인 隣國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면, 일본 사신이 신라를 방문했을 경우 이들에게 적용한 영접의례는 동등한 입장에서 행해지는 禮, 즉 尙禮가 행해졌을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 일본과는 다른 성격의 관계 설정이 보여 주목된다.

G-1.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 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 降爲屬國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年)

G-2. 耽羅國遣使朝貢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2年)

사료 G-1 은 신라 문무왕대 탐라국이 신라에 항복하고 屬國이 되었다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탐라국은 본래 백제에 臣屬하였다고 했는데, 66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자 스스로 신라에 속국이 되고자 한 모양이다. 『삼국사기』

³³ 『續日本紀』 卷19 孝謙天皇 天平勝寶 6年(754).

³⁴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2年(753).

³⁵ 이와 달리 황룡사 9층탑의 연기설화를 근거로 7세기 중반 신라는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天下觀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의 ‘9韓’을 屬國으로 인식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문안식, 2003, 『한국고대사와 말갈』, 혜안, 238쪽) 그러나 경문왕 12년(872)에 작성된 「皇龍寺九層木塔 刹柱本記」에서는 ‘9韓’이 朝貢을 바친다는 표현 대신 ‘海東諸國’이 항복한다는 표현이 보인다. 또한 찰주본기와 『三國遺事』에 황룡사 9층탑의 조영으로 三韓을 一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海東諸國’은 고구려와 백제로 한정시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실린 연기설화는 善德王대에 9층탑을 조성하면서 隣國이 항복하기를 염원한 것인데, 후대에 9한이 조공을 바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부회, 윤색된 것이다.(신동하, 2001, 「新羅 佛國土思想과 皇龍寺」 『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 22, 77쪽)

백제본기에는 탐라가 백제에게 ‘方物’을 바치거나,³⁶ ‘貢賦’를 바치지 않아 백제왕에게 사죄하는³⁷ 등의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사료 J-1 에서 耽羅國主가 언급한 백제에의 ‘臣屬’은 ‘조공을 바치는 屬國’, 즉 ‘藩國’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문무왕 2 년 탐라가 신라에 항복하고 屬國이 되겠다고 한 것은 이전의 백제와 맺었던 관계를 신라와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라와 탐라 간의 양국 관계는 신라 하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G-2 와 같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애장왕 2 년조에는 탐라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신라의 耽羅國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사료 G-1 과 G-2 는 신라가 탐라국을 藩國으로 관계 설정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라에 조공하기 위해 방문한 탐라국의 사신에 대한 신라의 영접은 당연히 변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격에 준하여 행해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음의 사례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H-1. 遣沙滄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 謹遣使一吉滄金須彌山等 就披策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隣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匹 綿十五稱 王其領之” (『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6 文武王 10 年)

H-2. 封安勝爲報德王 (『三國史記』 卷 7 新羅本紀 7 文武王 14 年)

사료 H-1 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 신라의 文武王이 고구려 유민 安勝을 高句麗王으로 책봉하는 기사이다. 冊文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무왕은 안승을 책봉하면서 “영원히 隣國으로서 형제같이 지내라.”라고 하여 마치 양국이 동등한 交隣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冊文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마치 황제가 체후국에 하는 책봉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³⁸ 여기서 더 나아가 신라는 사료 H-2 에서와 같이 문무왕 14 년(674)에는 문무왕 자신이 고구려의 국왕으로 책봉했던 안승을 다시 報德王으로 책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신라는 안승이 보내온 사신에 대해서도 앞서 살핀 탐라국 사신의 사례와 같이 변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격에 따라 영접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³⁶ 『三國史記』 卷 26 百濟本紀 4 文周王 2 年(476).

³⁷ 『三國史記』 卷 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 年(498).

³⁸ 梁正錫, 1999, 「新羅 公式令의 王命文書樣式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15, 175~176 쪽.

한편 신라의 安勝에 대한 책봉은 羅唐戰爭期 신라의 당에 대한 입장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670년 문무왕의 안승에 대한 고구려왕 책봉은 스스로를 당의 藩國으로 인식했던 신라가 원칙적으로 당 황제의 고유한 권한으로만 여겨졌던 고구려왕에 대한 책봉을 이행한 사건이다. 이는 더 이상 신라가 당의 '번국'으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문무왕의 강하고 능동적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674년 신라의 문무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안승을 과거 당의 번국이었던 고구려의 국왕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왕, 즉 報德王으로 삼음으로써 당의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차단시켰다. 이처럼 신라와 당 사이의 상호관계설정은 만일 唐이 신라 왕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고유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면, 당장에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보덕국은 신문왕 3년(683) 신라가 보덕왕 안승에게 대야찬의 관등을 하사하고 京都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신라의 통치 영역 속에 완전히 편입되었다.³⁹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의 주변국에 대한 대외인식과 이를 통해 표출되는 사신 영접은 크게 藩國으로써의 경우와 隣國으로써의 경우, 그리고 宗主國으로써의 경우 세 가지로 대별되었다. 신라는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자국을 방문한 사신에게 적절한 영접의례의 격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던 것이다. 7세기 후반 신라는 당에 대해서 藩國, 일본에 대해서는 隣國, 그리고 탐라국이나 보덕국, 그리고 건국 초의 발해에 대해서는 宗主國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인식은 현실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였다. 신라의 藩國 중 하나였던 보덕국은 683년 신라의 영역 속으로 편입되어 사라졌고, 또 다른 藩國이었던 발해 역시 713년 당과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이상 신라의 藩國觀이 설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당·일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각각 藩國과 隣國으로 설정한 것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8세기 초반에 이르면 신라는 당에 대해서 藩國, 일본과 발해에 대해서 隣國, 그리고 탐라에 대해서 宗主國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주변국들에 대한 신라의 관계 설정은 신라 왕실의 안위와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국제 정세에 따라 변화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외국 사신에 대한 영접에서 그 격식 또한 이러한 대외인식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되었을 것이다. 唐의 외국사신에 대한 영접은 기본적으로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찾아오는 '藩國'의 군주, 혹은 '藩國'의 군주가 파견한 使臣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 皇帝國 체제의 의례였다면, 8세기 이후 日本의 영접의례는 唐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하여 마치 唐이 주변국의 사신들에게 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⁴⁰ 그러나

³⁹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3年(683) 10月.

⁴⁰ 일본은 8세기 이후 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천하관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천하관은 고대 일본이 중국을 隣國, 신라나 발해와 같은 나라들을 藩國으로 관계 설정할 수 있는 관념적 근거로 작용하였다.(『令集解』 公式令 詔文式) 이로 인하여 일본은 자국을 방문한 발해나 신라의 사신들을 藩國의 사신으로 규정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영접의례를 적용시켜 여러 차례 외교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라인들의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은 당이나 일본보다 다층적이고 다원적이며, 현실 관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인식이 투영된 신라의 외국 사신에 대한 영접 또한 당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운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중·하대 신라의 주변국 사신에 대한 영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발표의 맺음말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에서 외국 사신에 대한 영접 업무를 담당한 관부는 領客府였다. 영객부는 본래 領客典이라는 중소 관부였는데, 진덕왕 5년 승을 처음으로 두면서 영객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객부로의 승격은 진덕왕 5년 김춘추가 추진한 적극적인 唐 禮制 도입의 일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 신라는 唐의 禮制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신 영접의례 체계를 들여오게 되었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사신 영접 업무를 담당했던 영객전을 영객부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이 때 수용된 당의 영접의례는 김춘추의 즉위 이후 중·하대 신라의 기본적인 사신 영접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라는 자국을 방문한 당 사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영접하였다. 먼저 당 사신이 바다를 통해 党項津에 도착하면, 당은군 태수는 그들이 작성한 문서와 더불어 입국사실을 행정계통을 통해 신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당 사신의 입국 사실을 보고받은 신라 국왕은 사신의 입국목적과 진위여부를 판별한 뒤 사신단을 王京까지 인솔할 使者를 파견하였다. 이윽고 당은군의 治所에 도착한 使者는 대기하고 있던 사신단을 인솔하여 唐恩浦路를 따라 入京길에 올랐다.

사신단이 王京의 郊에 다다르면 신라 국왕은 使者를 파견하여 郊迎 의식을 행한 뒤, 사신단 일행을 王京 내에 위치한 객관에 안치시켰다. 그 후 신라 국왕은 황제의 조서를 전달받을 날짜를 정하여 사신들에게 알려주었고, 약속된 날짜에 맞춰 왕경의 正殿에서 조서를 받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때 당의 사신은 출발 전에 준비해 온 國信을 신라 국왕에게 함께 전달하였으며, 그 후 신라 국왕의 주초로 臨海殿 등에서 연회 의식이 베풀어 졌다. 이상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친 당 사신의 귀국에 맞춰 신라 국왕은 答書와 答禮品을 전달하고, 사신단은 입경의 역순에 따라 귀국길에 올랐다.

신라는 來訪한 일본 사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영접하였다. 일본의 사신이 뱃길을 통해 신라의 菁州 부근 浦口에 來着하면 청주 도독은 일본 사신단이 작성한 狀과 함께 그들의 입국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들 문서는 청주의 문서행정계통을 통해 신라의 조정으로 이관되었고, 사신의 진위여부와 입국목적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신라 국왕은

일본 사신단의 입국 목적이 확인되면 입경 인원과 입경로 등을 확정된 뒤 靑州의 州治에 使者를 파견하였다. 한편 신라국왕의 입국 허가가 떨어지면 청주 도독은 일본 사신단을 州治로 옮겨 국왕이 파견한 使者를 기다리게 하였다. 청주에 도착한 使者는 일본 사신단 중 입경이 허가된 인원만을 인솔하여 입경길에 올랐는데, 입경 후의 영접 절차는 앞서 살핀 당 사신에 대한 영접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라의 주변국 사신에 대한 영접의 절차는 영접 대상 국가가 다르더라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영접의례의 격식 차이는 신라과 대상국의 관계설정에 기인하였다. 중·하대 신라의 주변국들에 대한 관계 설정은 藩國으로서의 경우, 隣國으로서의 경우, 宗主國으로서의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대별되었다. 7 세기 후반 신라는 당에 대해서 藩國, 일본에 대해서는 隣國, 그리고 탐라국이나 보덕국, 그리고 건국 초의 발해에 대해서는 宗主國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 세기 초반에 이르면 신라는 당에 대해서 藩國, 일본과 발해에 대해서 隣國, 그리고 탐라에 대해서 宗主國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대외 인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역관계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외국 사신에 대한 영접 역시도 대외인식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실리적으로 변용되었다.